

잊고 지낸 일상의 소중함 깨우치다

오혜경 작가 '오작가 마음'
20일까지 광주 예술공간 집
일상속 감정 조각으로 표현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로 기록하듯이 조각을 하는 입장에서 평소 생각했던 다양한 감정들과 일상을 조각으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기록을 공유하는 전시입니다.”

오혜경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다 보면 일상에서 오

는 소중한 행복을 잊고 살 때가 많다. 가족 간 일상적인 대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의 반복된 일상은 치열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한다. 당연시됐던 소중한 행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전시가 '광주 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다. 오혜경 작가의 세 번째 개인전 '오작가 마음'이다.

작가는 흙을 구워 만든 테라코타 작품과 알루미늄 부조로 표현한 조각을 통해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들은 거창하고 특별하지 않다. 누구나 겪어봤고 흔한 일상들의 이야기다. 작품의 주요 소재는 흙이다. 작가는 따뜻함과 본연의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좋아 '흙'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흙을 빚어 조각의 표정부터 손짓



오혜경 '길몽(복숭아)'

과 시선 하나까지 세밀하게 표현했다. 그렇기에 조각에서 감정이 느껴진다. 흙 이외에도 알루미늄을 사용한 작품도 있다.

작품 '첫사랑'은 20대 시절 작가 본인의 감정을 담았다. 꽃다발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소녀의 조각 다음으로는 가로등 아래서 꽃다발을 들고 서성이는 소녀의 조각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준비한 꽃을 전하지 못하고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소녀의 모습에서 아쉬움과 쓸쓸함을 엿볼 수 있다.

지병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먹먹함을 표현한 '바램'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길몽 (복숭아)'은 사랑에 빠진 연인이 아이를



'개나리아파트 105동 1003호'

낳아 가정을 이루는 과정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등 찰나의 행복한 순간들이 담겼다.

'밤데렐라의 퇴근길'은 가족들의 밥을 챙겨야 하지만 차가 막혀 답답해지는 작가의 마음을 알루미늄판에 불꽃을 넣어 표현했다.

소파에 앉아 부부는 책을 하고 자녀들은 부부 사이에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의 '개나리아파트 105동 1003호'는 소소함에서 오는 행복의 소중함을 담고 있다.

젊은 시절 오작가는 철학적인 작품을 선호했다고 한다. 외형적으로도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아야만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관록이 쌓이면서 작품을 기획하는 마음이 변화



'밤데렐라의 퇴근길' /예술공간 집 제공

했다. 어렵지 않은 일상 속의 작은 소재에서도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외부적인 활동에도 제약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 가까운 것에서 주제를 찾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또 다른 깨우침이 있더라고요. 전시를 보러 오신 분들도 작품 속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일상의 위로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혜경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전국조각가협회, 남도조각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 예술고등학교에도 출강하고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장애예술인협회 정책포럼 오늘 '장애, 예술이 되다' 주제

(사)광주장애예술인협회는 15일 오후 2시 광주주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장애,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예술 정책포럼을 연다.

이날 포럼은 김형희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의 '장애인 문화활동 진흥방안'에 대한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식개선오늘' 대표 등의 광주 장애인문화예술 현황과 진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지정토론에서는 최승원 한국장애인국제음악제 예술감독과 허진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전자광 광주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문옥배 공주문화재단 대표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자광 회장은 “점증하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선진국 요소에 걸맞은 문화적 정책 방향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방향성과 결실을 맺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나라 기자

5·18문학에 선율을 더하다

내일 ACC극장 '빛고을' 공연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5·18 관련 시에 선율을 입힌 융복합 창작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광주시와 함께 창작 오라토리오 '빛고을' 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16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3회째 무대다.

'빛고을'은 광주의 대표적 시인인 고 문병란 선생의 5·18관련 시에 음악과 무용, 영상미디어를 결합한 융복합 창작 작품이다. 대규모 전문 예술인들이 참여해 무대를 꾸민다.

호남신학대 김성훈 교수가 관현악 반주를 붙여 만든 곡을 유형민 총감독이 연출하고 장윤성 지휘자와 함께 코리아립 오케스트라, 광주시립합창단, 광양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이 풍부한 선율을 선사한다.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5월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관현악 서곡이 무대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부활의 노래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은 '부활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마지막으로 온 빛들이 모여 민족통일의 찬란한 노래로 넘치게 된다는 '빛이여 빛이여 빛고을이여'로 힘차게 마무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지역시민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광주한국춤연구회 '오랜 새로움' 무용 공연

내일 문화재단 토요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16일 열네 번째 토요상설공연 연희·무용 무대에 (사)광주한국춤연구회 '오랜 새로움'을 선보인다.

1986년 창단한 (사)광주한국춤연구회는 고 남재 송준영 선생이 지역의 한국무용 발전과 보급을 위해 만들었다.

현재 제8대 대표 서화연 (평안남도무형문화재 3호 부채춤 김백봉류 이수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한국무용 전문 예술단체다.

이날 공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이매방류 살풀

이', 거문고 선율과 함께하는 창작 안무 '금선무', 판소리 춘향가 중 '신년맞이',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김백봉류 부채춤', '박병천류 진도북춤', '서한우류 버구춤'을 통해 원작이 가진 의미와 변화하는 우리 춤을 이야기하며 예술적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 작품 '신명의 춤 어울림'에서는 출연자와 함께 북, 소고, 버구를 들고 사물 장단, 구름 등 가무악이 한데 어우러진 흥겨운 공연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 연출은 서화연 대표가, 기획과 안무는 최지선씨가 맡았다. 공연은 한진희(국가무형문화재 이매방류 승무 이수자), 최지선



(사)광주한국춤연구회 '신명의 춤 어울림' 공연 중 한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국가무형문화재 강선영류 태평무 이수자), 이현희(광주시립창극단원), 김영연(광주시립창극단원), 최민준(광주시립창극단원), 김연우, 오혜원, 김보민이 출연하고 소리는 정동렬

(광주시립창극단원), 연주는 김준영(장구), 김승호(대금), 최하연(거문고), 신지수(쟁과리), 이권수(북)가 함께한다. 사회는 김산옥씨가 맡는다. /이나라 기자

www.dklmc.co.kr

도경건설 주식회사는

도로포장 전문 업체로서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특히 30여개를 등록하였고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에 9가지 기술을 등록, 특히 대한민국 최초로 결빙방지제를 생산하는 라인을 완성하여 SOC기술마켓에도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한국형 포장기술을 완성에 나아갈 것입니다.

길 만드는 사람들
도경건설(주)
DOKYEONG Construction CO.,LTD

대표이사 신현국 박정연
Tel. 061_393_3315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10

결빙방지재
(Grikol)

균열보수재
(DK-Creak Sealer)

반강성주입재
(Semi-rigid Pave)

고성능개질콘크리트
(BLMC)